

단순 욕설도 처벌 대상, 최고 3년 징역형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고 3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몇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공개적'이고 둘째는 내용 면에서 '모욕, 욕설, 비하'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집체회의 중에 누군가를 욕하거나 위챗그룹에서 언어적 공격을 한 경우, 혹은 모멘트나 미니 블로그 등 공개적인 플랫폼에 욕설 정보를 올린 경우 모두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7일, 내몽골 림바오의 한 남성이 환불 분쟁으로 인해 소셜 플랫폼에 가게 주인의 사진과 애도 음악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욕설을 담은 문자 내용을 올려 행정규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11일, 사천성 모 현의 14세 여학생 4명이 학교내 갈등으로 인해 친구를 욕하고 때리고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공간기관은 구류와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인 선에서 언행의 경계가 이미 명확히 설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욕설이 위법인가?

화동사범대학 법학원 부교수 우림양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사람을 욕하는 행위가 전부 위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의 언어 공격은 실제로 성질이 악랄하고 법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은 후 불평을 하거나 호소할 뿐이면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위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요건이 이루어져야만 법적책임이 발생하며 사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진실, 객관, 존중'의 언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하고 도덕과 법률적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법 욕설 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언어는 칼날처럼 상처를 주기도 한다. 악의적인 욕설이 법에 위반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책임: 민법전 제 1024 조에 따

라 명예권을 침해하는 모욕, 비방 행위는 손해배상, 사과 등 민사책임을 진다.

행정책임: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위조하여 비방할 경우, 10일 이하 구류 또는 1,000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책임: 형법 제 246 조에 따라 공개적인 모욕 또는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행위가 '정황이 심각할' 경우, 모욕죄나 비방죄로 3년 이하 징역, 구류, 관제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해진다.

이는 욕설을 내뱉으면 가벼운 경우 5일 간 구류되거나 1,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구류 기간이 10일까지 연장되며 동시에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욕설로 인해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먹고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는 범죄 수준으로 이어져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다.

법적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우림양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불법적인 '욕설' 행위는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민사적 불법으로 간주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행정규처벌을 받는 '욕설'은 '정황이 비교적

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차례 무차별적인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법외로 간주되는 '욕설'은 '정황이 심각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악의적인 욕설 정보 조회수가 5,000회 이상이거나 전체 차수가 500회 이상이며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신적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이다.

'욕설', '비방'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3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 존엄은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모욕적 발언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존엄을 무시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며 심지어 타인의 정신적 상태를 훼손하는 폭력이다.

현실 생활에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에서 인터넷 폭력에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법이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고 공공공간의 깨끗함을 유지하며 더 심각한 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

/CCTV 넷

'12308' 전화 걸려오면 당장 끊어야

최근, 외교부 글로벌 령사 보호 및 봉사 응급 열선(12308 령사 보호 열선) 및 부분 중국 주외 대사관 및 령사관에서 접수한 신고에 따르면 불법분자들은 12308 령사 보호 열선 전화로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정보 제공, '수사 수락', '보석금' 납부 등 사기를 치고 있다.

외교부 령사보호중심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12308 령사 보호 열선의 주요 기능은 전화를 건 사람의 령사 보호와 관련한 도움 요청 사항을 기록하고 응급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 주재 대사관 및 령사관에 조치를 취하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열선전화는 공민에게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 사항이나 위법범죄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하지 않는다.

열선전화는 통화 시 다른 부분으

로 전환 연결하지 않는다.

열선전화는 통화중에 전화를 건 사람에게 지정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만약 12308 령사 보호 열선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당장 전화를 끊을 것을 권장한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열선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중국령사' 공식 App, 위챗 등 플랫폼에 문의할 수 있다.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재발신 버튼을 눌러 전화를 걸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셋째, 만약 불행히도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금이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 이체되었다면 본인의 국내 호적 소재지 공간기관에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교부 글로벌 령사 보호 및 봉사 응급 열선(24시간):

+86-10-12308

+86-10-65612308

/CCTV 넷

료원 경찰, 전신 '부부사기단' 검거



최근, 길림성 료원시 동풍현공안국 사하파출소에서는 대중들의 반응이 집중된 재산 침해 사건을 중점적으로 타격했다. '민생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리념으로 협동 작전과 정밀 수사를 통해 한건의 전신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이번 수사에서 범죄용의자 2명을 검거하고 총 6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추징 및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대중들의 재산 안전을 확고히 지켜냈다.

2025년 11월 5일, 사하파출소는 관할구역 주민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후 경찰은 신속히 대응했고 신고 단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한편으로 신고인에게 사건 경과를 상세히 묻고 대화 기록, 이체 증빙 등 핵심 증거를 꼼꼼히 수집, 정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 방향을 확정된 후 용의자의 신원 특징, 범행 수법 및 활동 경로를 전면적으로 파악했다. 효율적인 분석, 판단 능력과 탄탄한 수사 기

반을 바탕으로 경찰은 성공적으로 용의자의 신원 정보와 일상 활동 경로를 확정했다. 용의자의 은신 장소를 명확히 확인한 후 경찰은 즉시 용의자 왕모와 배우자 최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왕모는 인터넷 소셜 플랫폼에서 독신 여성 신분을 사칭해 '연애관계 맺기', '사랑놀이'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사기를 쳤다. 피해자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왕모는 안해 최모에게 위챗 영상 통화에 나서도록 지시해 피해자의 의심을 해소시키고 신뢰를 높였으며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해결후 사하파출소는 즉시 불법 자금의 류통 경로를 추적해 해당 불법 자금 6만원을 전액 회수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반환했다.

/길 리전기자

/사진 동풍현공안국



장춘 여성 '당첨 카드'에 속아 10 여만원 넘게 날려

최근, 장춘시공안국경제기술개발구분국은 장춘에서 발생한 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인터넷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장춘시공안국경제기술개발구분국 관할구역인 은하가원아파트단지 주민 왕녀사는 발신 주소를 알 수 없는 택배를 받았다. 포장 안에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품권에 당첨'이라는 선전 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中奖卡)의 QR 코드를 스캔하자 낯선 사이트로 연결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칭 '고객봉사'라고 주장하는 인원이 '임무를 완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유로 왕녀사를 유혹했다. 이후 왕녀사는 그의 요구에 따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등록까지 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왕녀사는 '고객봉사'인원이 배정한 결제 임무를 맡아 연속 이틀간 수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객봉사'인원은 왕녀사가 소프트웨어에 매일 출석하지 않았다 는 리유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왕녀사에게 특정 QR 코드를 보내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임무 완수'를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왕녀사는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지정한 계정으로 여러차례 관련 금액을 입금했다.

이후 해당 '고객봉사'인원은 "현금으로 지불하면 임무 완수가 빨라진다."고 유도했고 이에 왕녀사는 상대방이 제공한 지정 장소로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주었다.

나중에 왕녀사는 해당 결제 앱에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없고 전에 연락했던 '고객봉사'인원과도 연락이 두절되자 비로소 사기당했음을 깨달았다. 결국 왕녀사는 총 10 여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리전기자

십사도구진변경파출소 법제 선전 활동을



을력설을 앞두고 장백조선족자치현 십사도구진변경파출소는 의미 있는 겨울철 법제 선전 활동을 벌였다. 주민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고 변경지역의 조화롭고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활동에서 경찰들은 거리 주요 도로에 법제 선전 표어를 게시하고 법률상담소를 설치해 오가는 주민들에게 <치안관리처벌법>과 <민법전>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손옥박(孙旭搏), 리림동(李林栋), 최창남



명절 앞두고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기 조심해야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예약과 명절 물품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기범들도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노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북경시공안국 형사수사총대는 최근 명절 전후로 빈발하는 사기 유형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항공권 환불 및 변경 사기

사기꾼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항공사 고객봉사 중심이라고 사칭한다. '항공권 조정', '시스템 오류', '좌석 부족' 등 리유로

환불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는 문자나 전화를 보낸다. 피해자가 속아넘어가면 사칭 '고객상담원'들은 개인 위챗, QQ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추가하고 허위 환불 및 변경 링크나 QR 코드를 발송하여 은행카드번호, 비밀번호, 문자메시지 인증 코드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돈을 몰래 빼내간다.

허위 소핑 봉사 사기

사기꾼들은 위챗그룹, 모멘트, 온라인 소핑 플랫폼 등에 '명절 상품 류통업자', '직접판매업자'의 신분으

로 저가 할인, 해외 구매 대행, 0원 소핑 등 허위 광고를 류포한다. 피해자가 선결제를 하면 사기꾼들은 '상품 품질', '물류 지연', '봉사 절차 추가 비용 필요' 등 핑계로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다.

전자상거래 물류 고객봉사 사칭 사기

사기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온라인 소핑 주문 정보를 입수한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고객봉사중심이나 택배원을 사칭하여 '주문 오류', '택배 분실 및 손상' 등

을 리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환불보상'을 제안한 뒤 허위 환불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은행카드번호, 비밀번호, 문자메시지 인증 코드 등 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몰래 빼내간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분명한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나치게 저렴한 할인 광고나 비정상적인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넷

연애 비용과 혼전 구매 차량, 혼수에 속하는가?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혼수 관련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여 각급 법원의 혼수 관련 분쟁 판결 기준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정문명과 사회문명 건설을 촉진하도록 했다.

연애 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혼수에 해당할까? '류모와 장모의 혼인 재산분쟁사건'에서는 연애 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감정 표현 행위에 속하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거관계가 끝난 후 류모가 장모에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일상적으로 여러차례 이체된 것으로 랑측은 서로 이체한 기록이 있다. 장모도 생활비 지출과 류모를 위한 의류 구매, 전화요금 충전 등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인민법원은 이체가 랑측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장모에 대한 류모의 이체금 반환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결혼을 목적으로 지급된 주택

구매금, 차량 구매금 등은 혼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납채 관련 재판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모가 리모를 고소한 혼인재산 분쟁사건'에서 리모(녀)는 조모가 자신에게 차를 사주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조모는 리모에게 차량 구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말다툼으로 리모는 혼자 친정으로 돌아가 생활했고 랑측은 혼인신고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모는 리모에게 지급한 납채 및 차량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조모의 지급 행위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해당 차량 구매 대금이 혼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 사용 상황과 공동생활 기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가 일부 금액을 조모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인민넷-조문판